

makeup
your
Life

아모레퍼시픽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여성에게 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등 외면의 아름다운 변화를 선물하여
자신감까지 메이크업해드리는 활동입니다.

투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스스로 잊고 있던 아름다움을 **향기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향기로 단장하다
www.apgroup.com

향장

HYANGJANG



12

2019

★

YEAR
END GREETING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하여, 현재까지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4



- 06 **HYANGJANG NEWS**
이달의 주목해야 할 뷰티 소식
- 08 **LOOK & FEEL**
THE END OF THE YEAR
- 14 **BEAUTY LAB**
피부 나이를 되돌려줄 아이템
- 18 **BEAUTY SPECIAL**
YEAR END GREETING
- 26 **COLLECTION**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
- 28 **HEALTHY**
건강한 연말을 위한 필수품
- 30 **MAKE-UP PLAY**
CLOSE THE YEAR
- 34 **BEAUTY TREND**
MATT SKIN vs GLOW SKIN
- 38 **MUSE OF HYANGJANG**
주얼리 디자이너 박혜라
- 42 **EDITOR'S PICK**
에디터가 선정한 12월의 제품
- 44 **PLACE**
특별한 연말 선물을 위한 기프트 습
- 48 **ESSAY**
마음을 담은 편지
- 50 **CULTURE**
연말 파티를 위한 와인 리스트
- 52 **LIFE & MORE**
뷰티 피플 3인의 한 해를 정리하는 법



COVER

FACE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1N1호 바닐라 + 헤라 블랙 컨실러 닷 커버 미디엄 베이지 + 헤라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커버 미디엄 바닐라 +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3호 쉬폰 코랄 +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 EYE 헤라 섀도 홀릭 4D 5호 누드 브라운/내추럴 브라운 +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02호 브라운 +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팩트 2호 브라운 +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마스크라 1호 우디 그레이 LIP 헤라 루즈 홀릭 샤인 432호 스튜디오 베이지



08

MAIL
INFO@URBANBOOKS.CO.KR

WEB
WWW.APGROUP.COM

Amorepacific
COPYRIGHT 2019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1일 발행 통권 614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영현 제작문의 이기태 제품문의 080-023-5454 디자인 록북 스튜디오 기획·편집 어반북스 小工常人 에디터 김태경, 김현의, 오지수 스타일리스트 곽지아
* 〈향장〉은 www.apgroup.com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 판매용 매거진입니다.



primera



HERA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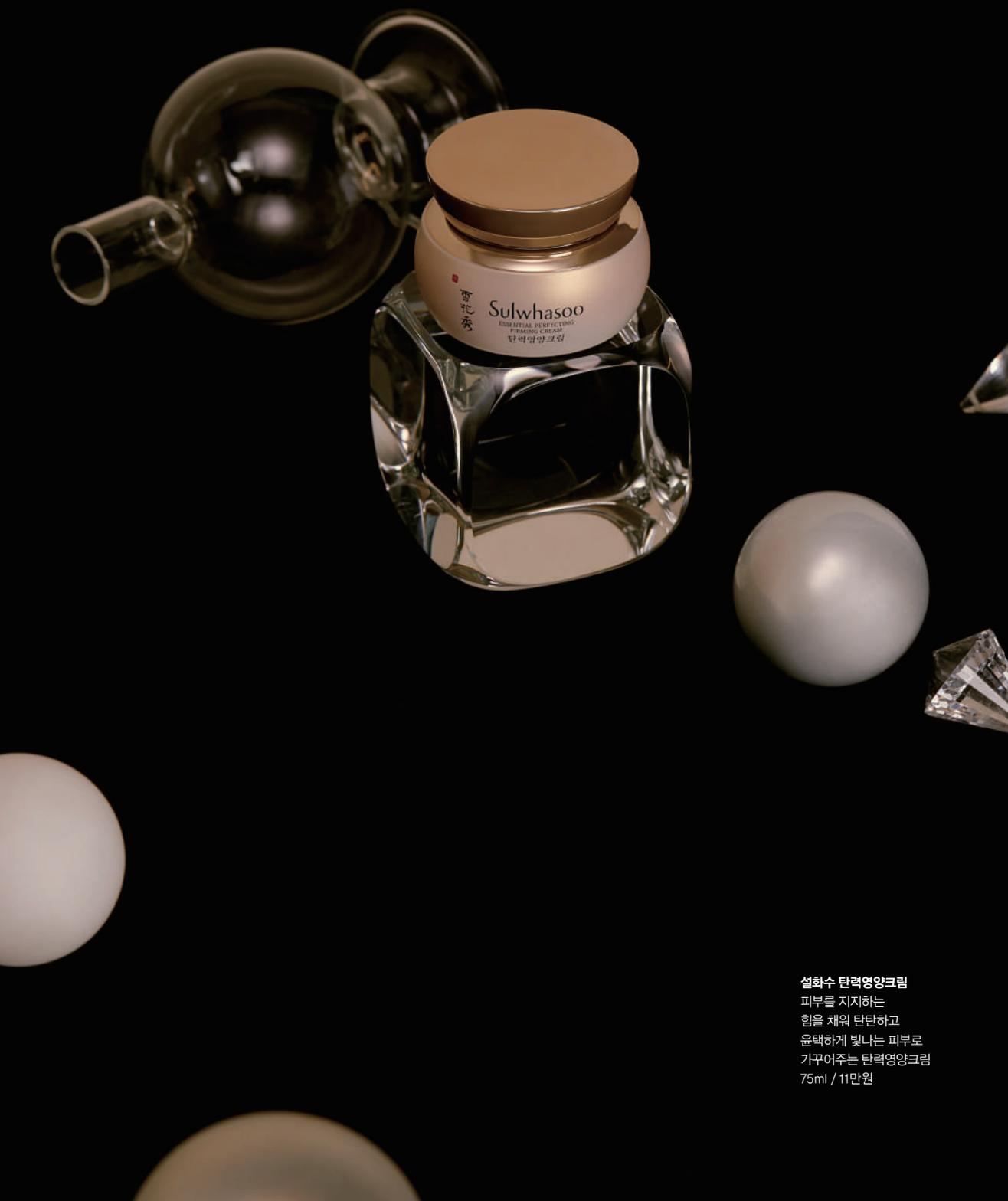
완벽한 밀착 커버 레이어링으로
본연의 나를 드러내다

블랙 쿠션 | 블랙 파운데이션 | NEW 블랙 컨실러

The NEWS Beauty



GOUTAL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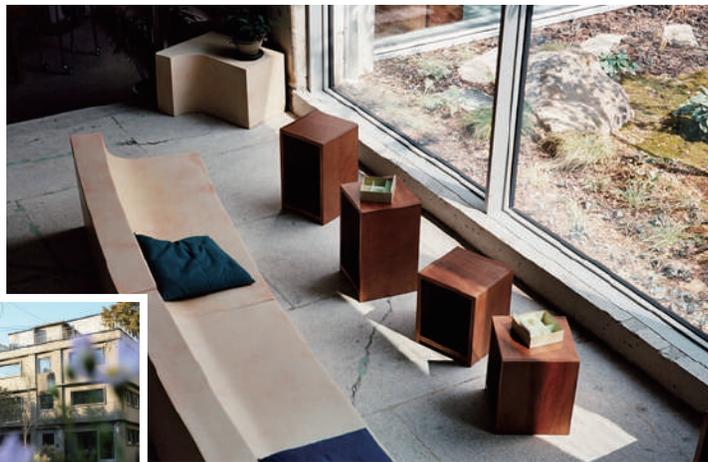


설화수 탄력영양크림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채워 탄탄하고
윤택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영양크림
75ml / 11만원



THE SPECIAL BEAUTY LOUNGE

아모레퍼시픽이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성수동에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뷰티 라운지, 아모레 성수를 오픈했다. 오래된 자동차 정비소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단순히 화장품 판매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아모레퍼시픽의 70년 노하우가 담긴 30여 개 브랜드, 2천3백여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감각을 따라 직접 메이크업을 해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아모레 성수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수가든을 내려다보며 녹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사색을 즐기기에 좋다. 새로운 뷰티 라운지를 찾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수동으로 걸음을 옮겨볼 것. **위치**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1길 7 **시간** 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30분 (월요일 휴무)



★ PER SUEDE FRAGRANCE

체취 뷰티 전문 브랜드 프라도어가 신제품 퍼스웨이드 라인으로 방판 고객들을 찾는다. 스웨이드와 캐시미어 소재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감성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라인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사용하기 좋은 향취를 담은 바디 오드 퍼퓸 2종으로 구성됐다. 기존 바디 크림이나 오드 투왈렛에 비해 천연 에센셜 오일의 비중과 향료의 농도를 높여 매력적인 향취가 오래가며, 불필요한 체취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 나만의 고유한 향기인 듯 인상적인 체취를 스타일링해주는 프라도어의 신제품 퍼스웨이드 라인은 이번 달부터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프라도어 퍼스웨이드 바디 오드 퍼퓸 100ml / 6만7천원**



GET COLOR, GET YOUNG

러가 한층 어린 인상을 위해 원클릭 살롱컬러 새치크림을 출시한다. 이름처럼 헤어 전문 살롱에서 케어받은 듯 다양하며 자연스러운 컬러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 모던 딥 브라운, 시크릿 초콜렛 브라운, 워밍 마호가니 브라운 컬러 세 가지로 구성됐으며, 특수 용기를 활용해 1, 2제를 섞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짝 짜서 사용할 수 있다. 6가지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두피와 모발 케어 기능까지 겸비한 원클릭 살롱컬러 새치크림으로 간편한 새치 관리를 시작해보자. **러 원클릭 살롱컬러 새치크림 120g / 2만8천원**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문양의 집>

2019년 설화문화전은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우리 전통 문양을 소재로, 전통 문양의 실용적, 심미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 중 하나인 '집'이 배경이 되었으며, 리빙룸, 다이닝룸 등 다섯 공간의 기능을 바탕으로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한편 설화문화전은 2003년 전통문화 후원을 위해 발족한 '설화문화클럽'을 시작으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더 가까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설화문화전을 통해 건축, 인테리어, 패션, 영상 등 장르를 넘나들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문양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일정** 10월 18일(금)-12월 2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무)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언제 어디서나 향기롭게

올 연말에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구말 향수로 풍성한 파리지앵의 향기를 연출해보자. 구말 베스트 셀렉션 세트는 구말의 베스트 셀링 향인 뷔피드 쉐리, 페뉴 드 스와레, 영 마뎡 도하주 3가지 오드 퍼퓸을 10ml 소용량과 감각적인 컬러의 파우치로 구성된 세트 제품. 부담 없는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고 스웨이드 소재의 개별 파우치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오직 방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 상품으로 소장 가치가 높고,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구말 베스트 셀렉션 뷔피드 쉐리 10ml + 페뉴 드 스와레 10ml + 영 마뎡 도하주 10ml / 8만9천원**



AMORE PACIFIC BUSINESS CENTER

아모레퍼시픽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중심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판 고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인 서울비즈니스센터를 열었다. 앞으로 뷰티와 헬스 트렌드를 이끌며 카운셀러와 고객의 만남의 장 역할을 할 예정. 커피를 즐기며 리프레시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방판의 모든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브랜드존과 뷰티라운지, 방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히스토리 & 헤리티지 월 등 다채로운 공간 구성으로 시선을 끈다. 특히 요일별로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피트니스 공간은 체성분, 체형 자세 평가 등의 1:1 고객 프리미엄 건강 서비스를 진행한다.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 플러스 빌딩 4, 5층 **문의** 02-6328-1011



THE END OF THE YEAR



어느덧 다가온 2019년의 끝,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기만의 의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은 선물과 카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회되는 일이나 아쉬웠던 순간을

정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나만의 사적인 시간은 더 행복한 새해를 선사할테니까요.



Photographer KIM JAE HOON
Model
CHUN YE SEUL
Hair artist
LEE IL JOONG
Makeup artist
CHO A REUM, LIM JEONG CI
Stylist
KWAK JEE AH
Set stylist
LEE NA KYUNG

마음을 전하는 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그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함께 하지 않았나요? 고마운 이,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헤라 시그니아 세럼

3백만 나르시스 식물세포
성분의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 세럼 50ml / 22만원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식물세포
성분의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 크림 60ml / 28만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켜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설화수 바디로션, 바디워시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 제품
바디로션 250ml / 6만원,
바디워시 250ml / 4만원

나를 돌아보는 시간



A TIME FOR MYSELF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나를 가꾸는 시간을 통해
세월의 흔적을 천천히 훑을 수는 있다.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집중해 건강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피부를 완성해야한다.

Photographer
PARK JI HONG

3.2% 눈가 주름 개선	2.64% 팔자 주름 개선	3.62% 미간 주름 개선
-------------------------	--------------------------	--------------------------

피부 생명력을 키우는 힘

헤라 시그니아 라인 은 수선화에서 추출한 식물세포 나르시스 스템셀을 담아냈다. 수많은 식물 가운데 수선화를 선택한 까닭은 독보적인 생명력 때문. 시그니아 크림은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농축되어 피부의 자생력을 키워 탄력, 피부결 등 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완화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케어를 실현한다. 피부 위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고농축 텍스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끄러움과 촉촉함을 지속시키며, 함께 느껴지는 은은한 수선화 향은 그 매력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시그니아 크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건강한 아름다움

크림 한 병에 농축된 3백만 나르시스 식물세포가 피부에 스며들어 타고난 피부 그대로의 탄탄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2

강력한 안티에이징

헤라만의 스템-코드™ 기술로 유효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보다 젊고 건강한 피부로 가꾼다.

3

즉각적인 광채 효과

크림치즈와 같은 쫄쫄한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고, 녹아들 듯 스며들어 바른 직후 촉촉한 광채 피부를 만든다.

Editor's comments

"겨울철 찬바람을 맞은 피부는 건조해지고, 건조로 인해 탄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시그니아 크림은 고농축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피부 건조를 해결함과 동시에 피부 탄력, 결까지 케어해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려줘요. 연말,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비밀병기가 되어주죠." 김현의 (〈향장〉 에디터)

"악건성 피부라 겨울철 고영양 크림은 필수. 하지만 꾸덕한 크림 타입은 흡수가 느리고 발림성이 좋지 않고, 오일은 겉돌아 끈적임이 남기 쉬워 사용하기 꺼려지죠. 시그니아 크림은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피부에 빠르게 밀착되어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빠르게 흡수되면서 피부가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고,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줘요." 오지수 (〈향장〉 에디터)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식물세포
성분의 토털 안티에이징
케어 크림 60ml / 28만원

피부 지지력을 높이는 힘

30대 이후로 수분량 및 유분량이 감소해 탄력 또한 급격히 떨어지는 여성의 피부. 에센셜 퍼펙팅 라인의 핵심 성분인 자음영양단™은 피부 건강을 케어하는 최적의 한방 원료들로 이루어져 피부의 영양, 탄력을 케어해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고, 더위와 추위에 강한 구기자 성분이 더해져 계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피부에 변함없는 영양과 탄력을 선사한다.

탄력영양크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강력한 영양 탄력 처방

구기자와 흑두, 갈근, 꿀 성분을 바탕으로 조합된 자음영양단™에 감국추출물과 맥문동을 더해 푸석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영양 탄력을 선사한다.

2

사계절 건강한 피부

더위와 추위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케어해줘 사계절 내내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3

밀착 탄력 사용감

농축된 질감의 크림이 피부에 밀착되듯 발리고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Editor's comments

"겨울이 되면 피부도 추위를 타듯 힘을 잃고, 건조해지며 피부 탄력도 떨어지죠. 이때 절실한 건, 피부 건조와 탄력을 한번에 해결해 줄 크림 한 통! 탄력영양크림은 귀한 한방의 보습 처방을 담아내 풍부한 영양감과 탄탄한 건강함을 더해줘요. 보습 효과와 안티에이징 효과를 한번에 제공해주는 똑똑한 제품이죠." 김현의 <<향장>> 에디터

"건조함이 심해지는 겨울엔 젤 타입으로 풍부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자음수 퍼펙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자음수 퍼펙팅으로 촉촉한 피부 바탕을 만들고, 농축된 질감의 탄력영양크림으로 2중 보습을 해주면 피부에 탄탄한 보습막을 형성해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 수분 탄력 피부를 만들어줘요." 오지수 <<향장>> 에디터

설화수 탄력영양크림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채워 탄탄하고 윤택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영양크림 75ml / 11만원



★
Y E A R
E N D
G R E E T I N G

Photographer PARK HYUN GOO
Model JUNG CHEONG SOL
Hair artist PARK SOO JUNG
Make-up artist LEE SE HYOUNG, LIM JEONG GI
Stylist KWAK JEE AH
Location TEA COLLECTIVE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어,
설렘 가득한 연말, 완벽한 파티를 위한
뷰티 가이드를 준비했다.





DAILY SKIN CARE ROUTINE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파티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꼼꼼히 다져야 한다. 파티 열흘 전, 완벽한 데일리 스킨 케어 루틴으로 탄탄한 피부 바탕을 세우자.

D - 1 0



완벽한 스킨 케어의 시작은 클렌징!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바른다 한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미세먼지를 말끔하게 닦아내지 못하면 무용지물. 오일, 폼 등 피부 타입에 맞는 제형의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성분이 피부에 맞지 않을 경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 클렌징 이후에는 미온수로 잔여물을 닦아낸다. 좋은 클렌징은 유해 성분은 제거하고, 피부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수분과 유분은 남겨주는 역할을 한다.

1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 클렌징 파우더 식물성 효소 성분이 모공 속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씻어내어 맑고 건강한 피부로 바꾸어주는 세안제 50g / 6만원 **2 헤라 젠 클렌징 오일** 부드러운 오일 클렌징 효과로 피부를 맑게 가꿔주는 클렌징 오일 200ml / 3만8천원 **3 설화수 궁중비누** 홍삼 진액의 항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2개 / 4만5천원 **4 프리메라 내추럴 리치 클렌징 폼** 천연 유래 성분을 담아 피부 노폐물과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부드러운 클렌징 폼 150ml / 2만원

STEP 1



STEP 2 꾸준한 스킨 케어 습관 들이기

클렌징을 마쳤다면 스킨 케어에 집중할 차례. 제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 한 번 더 닦아낸 후, 빠른 수분 충전은 물론 피부 바탕 자체를 견고히 다져주는 제품을 선택해 적당량을 발라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 꾸준한 케어와 함께 2~3일에 한 번씩 마일드한 시트 마스크 케어를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된다.

1 헤라 에이지 어웨이 바이탈라이징 워터 수분 공급과 피부 결 케어의 윤기 부스터 스킨 150ml / 5만원 **2 프리메라 씨드 앤 스프라웃 에너지 마스크** 로터스 발아 새싹 성분을 담아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깊은 영양을 공급하는 무표백 순면 마스크 5매 / 1만원



STEP 3 피부 컨디션에 맞는 스킨 케어

더욱 효과적인 케어를 위해서는 피부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제품을 선택하되, 유난히 건조하거나 칙칙하게 느껴질 때는 영양이 풍부한 에멀전 혹은 크림 등을 적절히 활용하자. 잠들기 전이나 메이크업 전, 시트 마스크 한 장으로 즉각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1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충분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만7천원 **2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꾸어주는 영양 에멀전 125ml / 6만3천원 **3 설화수 윤조마스크** 자음단™ 성분을 미세망 코튼 시트에 가득 담은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만원 **4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 리 인텐시브 크림** 탄탄한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고보습 수분 크림 50ml / 3만7천원 **5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플루이드** 아모레퍼시픽만의 독자적인 녹차 안티에이징 에너지가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안티에이징 플루이드 160ml / 22만원



SPECIAL NIGHT CARE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말 파티.
다음날 더욱 빛나는
피부의 마법은 밤에 이루어진다.
상황별 맞춤 특별한 나이트 케어 솔루션.

D - 1

시간이 부족할 때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는 것이 미용에 효과적이라는 뜻. 파티 하루 전, 충분한 잠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잠에 늦게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빠른 시간 내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고기능 제품, 혹은 바로고 잠들 수 있는 슬리핑 마스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SOLUTION 1

1 헤라 링클 콜렉터
다양한 형태의 주름을 치밀하게 집중 케어해주는 주름 마스터 크림 40ml / 8만5천원 **2 설화수 진설마스크** 강인한 적응의 생명력으로 다음날 아침 더욱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 80ml / 20만원

칙칙한 피부 톤이 신경 쓰일 때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피부 톤으로는 빛나는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특히 눈가 피부의 밝기는 동안과 노안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눈가를 화사하게 케어해주는 아이크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기능성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도 좋다.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면 슬리핑 마스크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림 제품으로 밤 사이 보습과 영양을 채워, 절제 빛나는 피부 톤으로 가꿔볼 것.



SOLUTION 2

1 헤라 에이징어웨이 바이탈라이징 크림 탄력 보습막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크림 50ml / 11만원 **2 아모레퍼시픽 유스 레블루션 래디언스 크림 앤 마스크** 마법같은 트랜스포밍 제형이 젊음의 빛을 선사하는 슬리핑 마스크 겸용 크림 50ml / 20만원

즉각적인 탄력이 필요할 때

탄력은 피부가 더욱 건강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다음날 더욱 탄탄한 피부를 원한다면 탄력에 집중한 아이템을 활용해보자. 세안 후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볍게 누르듯 물기를 제거한 다음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줄 오일, 세럼, 크림 등을 발라준다. 안면 근육을 사용해 셀프 마사지를 해주어 제품의 효능을 높여주는 것도 좋다.

SOLUTION 3

3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 탄력까지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만원 **4 프리메라 와일드 씨드 퍼밍 세럼** 와일드-퍼밍™이 2배 농축되어 힘없는 피부의 탄력을 집중 개선하는 3중 탄력 케어 세럼 50ml / 6만5천원 **5 설화수 자음생페이셜오일** 건조한 피부에 영양과 윤기는 물론 탄탄한 피부 장벽을 선사하는 페이스 오일 20ml / 1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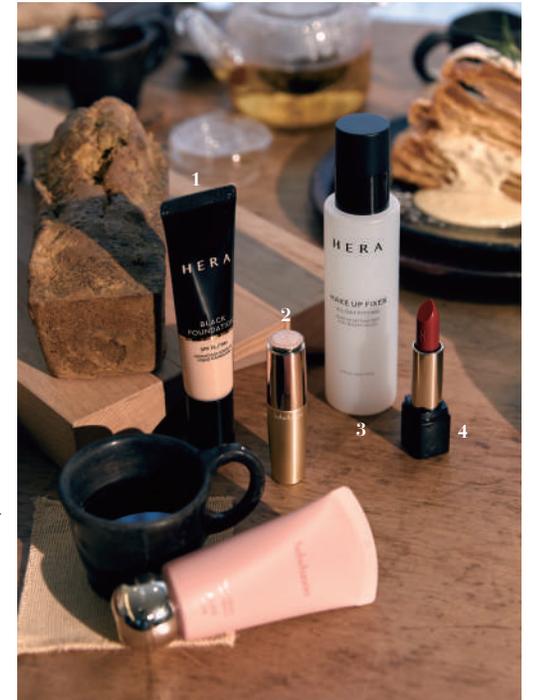
MAKE-UP FOR THE PARTY

대망의 디데이가 밝았다.
그동안 피부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오늘이야말로 눈부시게 빛나는 피부와
바디 메이크업으로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다.

MAKE-UP FOR SKIN

- 1 무결점 베이스 메이크업** 파티의 우아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얼룩덜룩한 피부 톤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 촉촉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파운데이션과 쿠션으로 하루종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자.
- 2 포인트 컬러 메이크업** 말끔한 피부에 립 컬러로 포인트만 주어도 시크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립 메이크업만으로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립 제품을 볼에 톡톡 두드려 치크로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
- 3 무너짐 없는 메이크업** 공들인 메이크업이 금세 무너져버린다면 큰일이다. 메이크업 픽서로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준다면 종일 흔들림없이 완벽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 1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4시간 무너짐 없이 커버되어 시크한 세미 매트룩을 완성해주는 블랙 커버핏 파운데이션 35ml / 6만원
- 2 설희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11호 래디언트 레드**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고 생기 있는 매끈한 입술로 케어해주는 립세럼 3g / 4만원
- 3 헤라 메이크업 픽서** 메이크업과 자석처럼 밀착되어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픽서 110ml / 3만2천원
- 4 헤라 루즈 홀릭 크림 342호 크리스마스 레드** 선명한 컬러, 부드러운 멜팅 텍스처가 촉촉한 입술을 선사하는 크림 립스틱 3g / 3만7천원



MAKE-UP FOR BODY

- 1 손까지 매끄럽게** 완벽한 페이스 메이크업에 푸석푸석한 손이라는 오점을 남길 수 없다. 핸드크림으로 틈틈이 손 피부 또한 관리해줄 것.
- 2 향수로 은은하게** 때론 강렬한 메이크업보다 은은한 향기가 시선을 끄는 법. 더욱 오래 가는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매혹적인 향을 더해보자.
- 3 이너뷰티도 확실하게** 파티에서는 유독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다면 파티 이후에도 변함없는 바디를 유지할 수 있다.

- 1 설희수 핸드크림** 백은향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는 핸드크림 40ml / 3만원
- 2 프리아더 퍼스웨이드 바디 오드 퍼퓸 06** 좋은 향만 남겨주는 깊은 잔향의 바디 오드 퍼퓸 100ml / 6만7천원
- 3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수 녹차 정제 520mg×90정 / 5만5천원
- 4 구말 파리 뽀퍼뜨 웨리 오드 퍼퓸** 달콤하고 머스키하면서도 발랄한 키스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향기 30ml / 11만8천원
- 5 구말 파리 스와 우 자메 오드 퍼퓸** 영원히 비밀에 부쳐질 비밀스러운 로즈의 향기 30ml / 11만8천원
- 6 구말 파리 메뉴 드 스와레 오드 퍼퓸** 보라색 피(Fur)를 걸쳐 입은 매혹적인 그녀의 이브닝 드레스룩을 표현한 향기 30ml / 11만8천원



A LOVING YEAR-END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치는 연말,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이를 위해,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들을 엄선했다.

1
활력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그에게



2
변함없는 생기를 원하는
이에게



3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이에게



1
오랜 시간 쉼 없이 달려온
가장들에게는 건강한
신체와 활력에서 오는
행복감을 되찾아줄 방법이
필요하다. 바이탈뷰티
자양본은 남성의 갱년기
건강 개선이 확인된
호르파 종자, 비수리
복합추출물을 함유해
지친 몸과 마음에 생기를
채워준다.
바이탈뷰티 자양본
(200mg×60캡슐) +
(250mg×30캡슐) / 15만원

2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갱년기가 찾아오면
건강리듬이 저하되기
쉽다. 그럴 땐 바이탈뷰티
자음보액으로 갱년기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의 행복감을
찾는 것도 방법.
회화나무열매추출물과
홍삼을 함유해 여성의
생기와 활력을 채워준다.
바이탈뷰티 자음보액
25g×30앰플 / 17만원

3
새롭게 다가올 한 해,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이에게는 촉촉한 장미꽃
잎 같은 피부를 선물하자.
헤라 로자-사틴 크림은
피부 턴 오버 주기를
케어해 탄탄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가꿔준다. 피부에
달자마자 녹아내리는
무스케이크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를 느낄 수 있다.
헤라 로자-사틴 크림 50ml /
9만8천원



Photographer
PARK JI HONG

INNER BEAUTY COMES FIRST

Photographer
PARK JI HONG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정신없는 연말에도 놓칠 수 없는 이너뷰티에 대한 궁금증을 들여봤다.

1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을 때면 설렘보다는 나이를 먹는다는 두려움이 앞서요. 변함없이 탱탱한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점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땐 피부와 신체에 수분과 콜라겐을 채워 촉촉한 균형을 세워주는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매일 저녁 스킨케어 하듯, 하루에 한 병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변함없이 젊은 피부와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25ml×30캡슐 / 10만원**



2

연말에는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져요. 체지방이나 체중 증가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법, 없을까요? 연말의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에 기름진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그럴 때면 체지방과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적당한 선에서 맛있게 즐기되 고열량, 고탄수화물 등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더해보세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직접 관리하고 재배한 100% 국내산 유기농 녹차를 사용하여 카페인 저감화 공정을 거친 카테킨이 함유되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적인 식사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일 가볍고 원활한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520mg×90정 / 5만5천원**



3

누적된 피로가 몰려오는지, 연말에는 유독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더욱 건강하게 새해를 보낼 방법이 궁금해요. 정신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낸 다음 맞이하는 연말이라면 그동안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신체 활력 충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보세요. 바이탈뷰티 리버프라임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B1부터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2,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E까지 골고루 함유하여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또한 밀크씨슬 추출물로 간 건강까지 이중으로 케어합니다. **바이탈뷰티 리버프라임 (600mg×30캡슐) + (700mg×30정) / 5만5천원**





C L O S E
the
Y E A R

Photographer KIM TAE SUN
Model SWAN
Hair artist YOON SUNG HO
Make-up artist CHO A REUM, BAEK CHANG HUN
Stylist KWAK JEE AH

WOMAN IN RED

LOOK 1

피부 톤을 단숨에 화사하게 밝혀주는 매혹적인 레드 립 메이크업으로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드레스업할 수 있다. 립에만 컬러 포인트를 준 미니멀 메이크업은 레드 립을 조금 더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아랫입술의 가운데 라인을 실제 입술 라인보다 조금 여유 있게 그린 후, 립스틱을 덧발라 볼륨감을 살려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1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커버**
넓고 옅은 잡티를 완벽히 커버해 어떠한 결점도 놓치지 않는 블랙 컨실러 5g / 4만원
- 2 루즈 홀릭 크림 342호 크리스마스 레드**
부드러운 멜팅 텍스처의 고선명 립스틱 3g / 3만7천원
- 3 블랙 파운데이션 17C1호 페탈 아이보리**
24시간 무너지 없이 커버되어 시크한 세미 매트룩을 완성해주는 블랙 커버핏 파운데이션 35ml / 6만원
- 4 립 디자이너 펜슬 7호 레드 벌룬**
다양한 입술 디자인과 컬러를 연출해주는 립 펜슬 1.2g / 2만원
- 5 리치 컬링 마스카라 79호 래쉬 블랙**
슬림해진 땅콩 브러시로 아찔한 컬링 효과와 깔끔한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컬링 마스카라 6g / 3만5천원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17C1호 페탈 아이보리로 매끈한 피부를 만든 다음,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슬 33호 브라운으로 눈썹을 채우고, 브로우 디자이너 마스카라 2호 캐러멜 브라운으로 눈썹 결을 살려 풍성하게 연출한다. 리치 컬링 마스카라 79호 래쉬 블랙으로 속눈썹의 볼륨감을 살리고, 립 디자이너 펜슬 7호 레드 벌룬과 루즈 홀릭 크림 342호 크리스마스 레드로 선명하고 글래머러스한 립을 연출한다.

HOW TO →



GOLDEN L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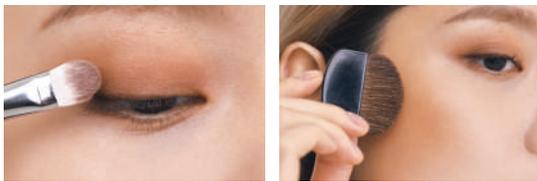
LOOK 2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브라운 컬러는 홀리데이 makeup의 포인트 컬러로도 손색없다. 브라운 컬러에 골드를 더하면 우아한 빛을 내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로즈 컬러를 더하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로즈 골드 브라운 컬러의 색도로 그윽한 눈매를 완성하고, 골드 액세서리 포인트로 글래머러스한 파티 룩을 완성해보자.

1 블랙 컨실러 닷 커버 작고 진한 잡티를 완벽히 커버해 어떠한 결점도 놓치지 않는 블랙 컨실러 5g / 4만원
2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 고급스러운 음영 컬러의 셰이딩 팩트 10g / 4만5천원
3 블랙 파운데이션 21N1호 바닐라 24시간 무너짐 없이 커버되어 시크한 세미 매트룩을 완성해주는 블랙 커버핏 파운데이션 35ml / 6만원
4 섀슈얼 틴트 416호 서틀 베이지 크리미한 텍스처가 얇게 발리고, 강렬한 컬러가 오래 지속되는 고선명 립 틴트 5g / 3만5천원
5 색도 듀오 16호 레이디 모브/로즈 브라운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완성하는 2색 아이 색도 3.3g / 3만5천원



HOW TO →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1N1호 바닐라로 세미 매트한 피부를 만들고, 블랙 컨실러 닷 커버로 결점을 완벽 커버한다. 색도 듀오 16호 레이디 모브를 눈두덩에 넓게 펴 바르고, 로즈 브라운을 더해 은은하게 빛나는 눈매를 만든다.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를 광대쪽에 터치해 가벼운 음영감을 주고, 섀슈얼 틴트 416호 서틀 베이지를 입술 전체에 채워 마무리 한다.



REAL SKIN

Photographer
PARK JI HONG Support
GETTYIMAGES KOREA



그 어느 때보다 다가오는 연말 모임에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주목받고 싶다면 화려한 메이크업에 공을 들이기보다 신경 쓴 듯, 안 쓴 듯 원래부터 좋았던 것처럼 피부 표현에 집중해보자. 보송보송 매트한 피부와 은은하게 빛나는 글로 피부 중 당신의 선택은?



- 1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15g×2 / 12만원
- 2 설화수 퍼펙팅쿠션 15g×2 / 6만5천원
- 3 설화수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30ml / 5만8천원
- 4 설화수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14g×2 / 6만8천원

glow

섬세하고 부드러운 질감은 물론, 속 피부까지 빛이 나는 듯한 피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굴에 윤기와 입체감을 주는 동시에 속살이 바칠 듯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 시즌 발망, 질 샌더 등의 캣워크에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건강한,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글로 스킨을 선택했다.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어하게 빛나는 광채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바르기 보다 브러시나 스펀지를 사용할 것. 플랫한 브러시나 스펀지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훑어준 다음, 팔자 주름, 콧망 주변 등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브러시를 수직으로 세워 콕콕 찍어주는 것이 요령.



최근 몇 년간 백스테이지를 장악한 '내추럴' 무드는 색조 메이크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가 아니다. 이번 시즌 돌체앤가바나, 베르사체, 랑방, 디올 등의 컬렉션에서는 보송한 이
미지가 느껴지는 내추럴하면서도 매트한 피부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피부 본연의 질감
을 살리면서 이마와 광대, 턱 등에 광이 살짝 도는 것이 특징.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덧
바르기 보다, 프라이머로 유분기를 없앤 후, 매트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 발라
섬세한 텍스처가 얼굴을 감싸듯 살짝 발라주는 것이 요령이다. 자칫 잘못하면 푸석푸석
해 보일 수 있으므로 T존이나 얼굴 윤곽에 파우더를 살짝 발라 여러 번 두드려주면 보송
한 광채를 끌어올릴 수 있다.



matt

1 헤라 블랙 컨실러 닷 커버
5g / 4만원 2 헤라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커버
5g / 4만원 3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35ml / 6만원
4 헤라 블랙 쿠션 15g x 2 /
5만5천원



DO AS YOU WANT

평범한 직장인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스타일리스트에서 셀럽들이 애정하는 주얼리 브랜드의 대표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H.R 박혜라 대표는 여전히 거침이 없다. 그것이 그녀의 행보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H.R하면 떠오르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트렌드를 주도하는 분으로써,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것저것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 은연중에 그런 게 디자인에 묻어나는 게 아닐까 해요. 트렌디한 것보다는 오래 가는 디자인을 생각하는 편이에요. 좋은 브랜드 옷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세련되게 느껴지잖아요. H.R의 이니셜 반지도 당시에는 새롭고 트렌디했지만 지금은 클래식이 됐어요. 그런 아이템들을 더 만드는 게 꿈이죠.

그리고 보니 H.R도 벌써 15년이나 됐네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브랜드를 유지해온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쪽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아이디어만 있고 지식이 없다 보니 H.R을 시작하고 10년간은 배우는 자세로 임했죠.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눈이 좀 트인 것 같

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셈이죠. (웃음) 저는 아직도 이 일이 재미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요. 당장 실현해보고 싶어서요. 재미도 재미지만, 단골 손님들도 원동력이 돼요. H.R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도 좋겠지만, 소수라도 꾸준히 찾아주는 분들이 제겐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니아층이 있다는 건 그만큼 개성이 명확하다는 뜻 아닐까요? 디자인을 할 때 저만 생각해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좋아해 주면 더 좋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잘 팔릴 거야', '이건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같은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생기고 개성이 뚜렷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대중적으로 만들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막연하게 사람들은 저런 걸 좋아하는



Photographer
HOON SHIN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더 당당하고 자신 있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올 한 해는 대표님께 어떤 한 해였나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현재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은 인터뷰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내일이 오면 오늘은 또 새로운 오늘인 거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은 올해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들을 하느라 바쁘게 지낸 거니까 그 일은 내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가올 2020년,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H.R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살려서 오브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커다란 해골에 눈에는 보석을 박아넣는 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사실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시간도 없고 부지런한 편도 아니다 보니 벌써 2020년이 다 됐

네요. 내년에는 꼭 작품 아닌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시로도 연결해보면 어떨까 해요. H.R의 15년 세월을 총망라한 아카이브 전시같은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살을 조금 더 빼고 싶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재미가 있잖아요. 조금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멋을 부려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멋 부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새로운 한 해를 앞둔 <향장>의 독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틀을 깨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쉽지 않은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일이나 가정보다 본인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중심 없이 일이나 가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당장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나를 위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에게 맞는 것이 다르겠지만 2020년에는 조금 더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해보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요. ■

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갈 길 가련다라는 마음으로 일해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이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군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건을 팔다 보면 일희일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시장을 이해하려고 해요. 저 같아도 여유가 없으면 꾸미는 것에 들어가는 돈부터 줄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매출이 좋지 않은 때가 있어도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고 말아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죠.

대표님의 메이크업이 시선을 끌어요. 본인만의 시그니처 뷰티 노하우가 있나요? 화장품을 세 개 이상은 안 바르려고 해요. 아침에 세수하고 스킨, 로션, 선크림 정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다죠. 특히 아이라인이 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라인을 길게 빼서 그리는 스타일이었던 지금은 뭉개듯이 선을 딱 세 번만 그어요. 길게 빼서 그리려면 양쪽 모양이 똑같아야 예쁘는데 그걸 맞추기가 매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뭉개버리자, 싶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웃고 놀랐죠. 그런데 몇 년 정도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박헤라 스타일이 됐어요. 개성과는 상관없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멋져 보이지 않나요? 한껏 꾸민 다음 스스로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더 좋은 걸 입고 나와야 했나?' 생각하고 움츠러드는 것보다, 전혀 멋 부리지 않아도 스스로 당당한 게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든 티셔츠에는 두 가지 문구가 쓰여있어요. 첫 번째는 '난 내가 너무 좋아', 두 번째는 '난 네가 너무 좋아'예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낮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껴요. 누가 옆 사람을 무시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은연중에 '아,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반면 누가 옆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건 민폐도 아니고 이기주의도 아니에요. 스스로

H.R 고딕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론칭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H.R JEWELRY&HOME을 통해 독특한 감각의 테이블 웨어 또한 선보이고 있다. **헤라 로자-사틴 크림** 같은 보드랍지만 속은 촉촉한 장미 꽃잎 같은 '로자-사틴 피부'로 가꿔주는 걸 케어 크림 50ml / 9만8천원





1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완벽한 메이크업은
완벽한 베이스로부터
시작된다. 섬세한 톤
구분으로 피부 톤에
맞는 컬러 선택이
가능해, 마치
내 피부인 듯
자연스럽게 커버된다.
35ml / 6만원

2 구말 페뉴 드 스와레
오드 퍼퓸
연말 파티의 매력적인
이브닝드레스와
어울리는 아이템을
찾는다면 주목할 것.
실키하고 달콤한 구르망
시프레 계열의 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30ml / 11만8천원

3 프리메라 와일드 씨드
피팅 세럼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탄력 피부를 원한다면
야생공 씨앗의 힘을
빌려보자. 피부에 착 붙는
넉넉한 텍스처가 촉촉하게
스며들며 피부를
탄탄하게 가꿔준다.
50ml / 6만5천원



editor's PICK

Photographer
LEE DONG SOO

한 해의 마무리, 무결점 피부로 완벽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12월의 아이템.

4 바이탈뷰티 자양본
갱년기 남성을 위한 연말
선물로 안성맞춤. 갱년기
건강 개선이 확인된
호로파와 비수리 추출물을
함유해 잃어버린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준다.
(200mg ×
60캡슐) + (250mg ×
30캡슐) / 15만원



7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서부터 발현되는 법.
매일 저녁, 진한 베리 향의
콜라겐 앰플 한 병으로,
촉촉한 생기로 채워지는
피부와 몸을 느껴보자.
25ml × 30앰플 / 10만원

8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인텐시브 크림
겨울철의 건조한
공기와 매서운
칼바람에 대적할
장벽 강화 수분크림.
안젤리카 버드워터가
함유되어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50ml / 3만7천원



5 설화수 탄력영양크림
촉촉해진 피부에 이별을
고하자. 바른 즉시
탄력감을 선사해
사계절 내내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75ml / 11만원

6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부드럽게 발리고 빠르게
스며든다. 가벼운
제형에 비해 온종일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케어하는
영양감의 반전 매력.
50ml / 7만원

9 러원클릭 샴롱걸러
새치크림 모던 딥
브라운 새치염색도
샴롱에서 케어받은
듯 셀프 케어로도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특수 용기 덕분에
1,2제를 섞을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120g / 2만8천원



The LIFE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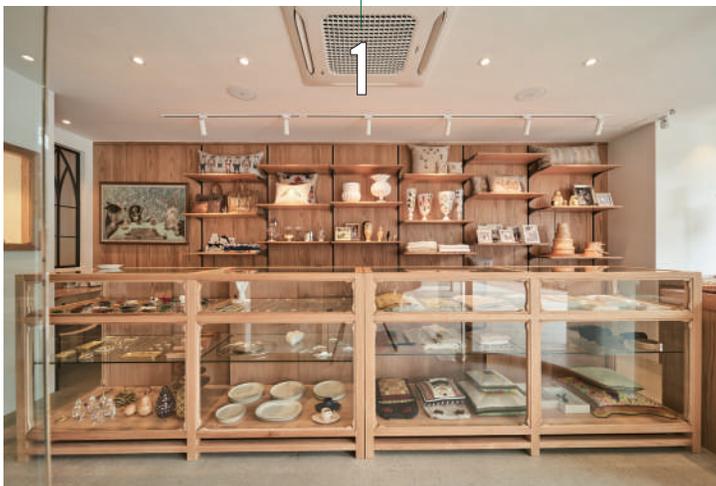
에디토리얼 커피와 음악,
아름답고 실용적인 물건들로
가득한 에디토리얼에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골라볼 것.



진정성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아름답고 훌륭한 쓰임새를 가진 물건들을 다루는 기프트숍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다.

HEART-TO-HEART GIFT

팀블룸



오랜 시간 인사동 가로수길에서 세계 각지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소개해온 팀블룸이 서촌에 새 동지를 틀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새로운 공간은 팀블룸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조금 더 밀접히 맞닿아 있다. 대량 생산품이 아닌, 사람의 손길이 녹아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 제품 하나하나에 깃든 노력과 정성의 가치를 아는 이에게 미나 퍼호넨, 안티파스트, 아스티에드 빌라트 등 개성 넘치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수공예품만 한 선물이 또 있을까.

- 위치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6 무목적빌딩 지하 1층, 1층
시간 일-금, 오전 11시-오후 8시 (토요일 휴무)
문의 02-518-8269

에디토리



2

음악을 즐기고 오디오 제품에 관심이 많은 이에게 적합한 선물을 찾는다면 성수동에 위치한 에디토리를 찾을 것. 제네바, 뱅앤올룹슨, 오디오 테크니카 등 유명 오디오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외에도 조명, 가구, 문구류와 커피 관련 용품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책임지는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인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전시와 토크, 클래스 또한 활발히 진행한다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 위치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8 2층
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문의 070-7576-4047



챗터원 에디트



3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챗터원 에디트는 편집숍보다는 박물관에 가깝게 느껴진다. 아시아 고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예와 아트 작품들로 가득하기 때문. 그릇과 잔 등 쓰임새가 있는 물건부터 무용하지만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감을 주는 오브제까지, 남다른 감각을 가진 이에게 선물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 같은 걸을 가진 카페와 갤러리, 소품이 한데 어우러져 가만히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공간이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65
시간 월-토, 오전 11시-오후 7시 (일요일 휴무)
문의 02-3447-8001



Support 에디토리, 챗터원 에디트, 컬렉트&위클리캐비닛, 팀블룸, 포인트 오브 뷰, place1-3, TWL shop

TWL shop

4



TWL은 Things We Love의 줄임말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을 소개하고 좋은 일용품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생활용품 브랜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통 공예품은 물론,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해외 브랜드 제품과 TWL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오리지널 라인의 제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소박하면서도 편안한 감성의 찻잔, 그릇 등의 식기류와 패브릭 등 테이블웨어가 돋보여 요리 취미를 둔 사람의 선물을 고르기에 좋다.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87 토도빌딩 1층
시간 화-토, 오후 12시-오후 8시 / 일요일 오후 1시-오후 6시 (월요일 휴무)
문의 02-6953-0151

place1-3

5

복잡한 가로수길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까. 실제 가정집을 개조해 라이프스타일숍으로 꾸민 place1-3에서라면 가능하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마치 친구 집에 놀러 가, 방과 거실, 서재를 구경하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진다. 웰컴 티와 함께 place1-3가 선별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가구, 소품, 서적 등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선물의 대상에 대한 충분한 사색이 이루어져, 보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압정로10길 21 3층-6층
시간 화-토, 오후 12시-오후 9시 / 일요일 오후 12시-오후 6시 (월요일 휴무)
문의 02-3444-1155



포인트 오브 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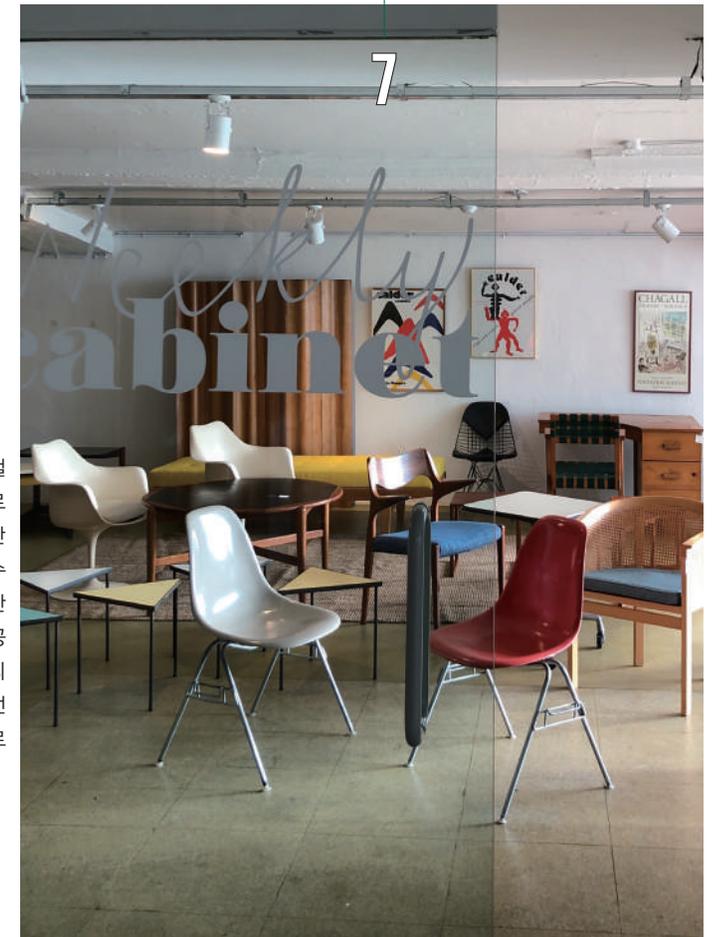
노트와 펜, 지우개, 가위 등 아름다운 문구류와 사무 용품을 사랑하는 이를 위한 선물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포인트 오브 뷰로 향할 것. 종이와 필기구를 포함한,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문구부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까지 공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문구를 다룬다.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문구가 가진 이야기와 히스토리를 섬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 위치 서울시 성동구 연무정길 18 2층
시간 오후 1시-오후 8시
문의 02-467-0018



컬렉트&위클리캐비닛

7



빈티지 가구 매니아를 위한 선물을 찾는다면 컬렉트&위클리캐비닛을 추천한다. 미드 센트리 모던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이너 빈티지 가구점으로,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가구들 중 컬렉트하고 싶은, 즉 수집하고 싶은 가구를 선보인다. 바로 옆에 위치한 위클리캐비닛은 컬렉트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으로 주기적으로 한 가지 콘셉트를 정해 아티스트 또는 브랜드와 협업해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 또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예술적 감성을 가진 이에게 안성맞춤.

- 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60 한강빌딩 101호, 102호
시간 월-토, 오전 11시-오후 6시 (일요일 휴무, 예약 후 방문)
문의 02-793-5011

LETTER TO MY SELF

을 연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자. 미처 돌보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선아, 안녕!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이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았어. 흔쾌히 승낙하고 며칠간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봤는데 도무지 편지를 쓸 수 없어서 내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 고마운 사람이 없다거나 세상 누구보다 나에게 고마워서 그렇다기보다는 타인에게 긴 편지를 써 내려갈 자신이 없더라고.

올해는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 만난 동료 중 고마운 사람이 몇 있고 그들을 통해 풍족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 일하면서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행운이지. 아, 그리고 여름이 끝날 무렵에

박선아
잡지 에디터를 거쳐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비주얼 에디터로 일하는 박선아는 섬세한 문장으로 마음을 건드리는 글을 쓴다. 저서로 <20킬로그램의 삶>, <어떤 이름에게>가 있다.

Words
PARK SUNA
Illustrator
JO SUNGHEUM

는 오랜만에 선하고 순수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잖아. 그를 통해 내 마음이 까맣다는 것도 알아차렸지. 매년 내가 까만 마음을 내보여도 하얀 마음으로 대해주면 이런 자신이 작아지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해. 매년 한두 군데 수술을 하던 엄마와 아빠가 아픈 곳 하나 없이 본인들의 삶을 건강히 살아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 기분의 무력함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이렇게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에게 긴 편지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 왜일까.

올해 나는 서른둘이라는 나이로 한 해를 보냈잖아. 내가 몇 살인지 늘 헛갈려. 삼십 대가 되고는 계속 그러는데, 잊어버리고 싶은 건지 정말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매년 정확한 나이를 망설이지 않고 말하기까지 반년은 걸리는 것 같아. 이 나이를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벌써 다음 숫자가 가까워지더라고. 그냥 '나는 삼십 대 초반이다.' 이런 감흥만으로 3년을 지나왔어.

이 숫자가 적용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 나이가 주는 감정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삼십 대에 접어들면서 어쩐지 주눅 든 느낌이 계속 들거든. 지금이 싫은 것은 아니야. 오히려 좋아하는 쪽에 가깝지. 누가 물으면 지금의 내 나이가 마음에 든다고 말해. 이뤄본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제법 있어. 어릴 적에 내가 그리던 어른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어. 그런 내게 20대로 돌아가 다시 그 시간을 살라고 하면? 어휴, 막막하다. 그런데도 어쩐지 내 몸과 마음은 자꾸만 시무룩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란 기대도 어린 시절보다 줄었지. 더군다나 올해는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갔니. 혹

이니 조직검사니, 염증과 노화, 그런 단어들과 그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들이는 돈 앞에서 초라해지던 기분은 앞으로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왜 내게 편지를 써야 했는지 알 수 있을까? 나, 여유가 없었어. 누군가에게 제대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짬이 없었지. 온통 나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 한 해를 보낸 것 같아. 나이 드는 일을 이렇게나 예민하게 감각하는 자신을 엄하게 한 번 찌러보고 마음을 다 잡고 싶어서, 내게 편지를 쓰는 거야. 나를 둘러싼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 슬픔을 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늙어가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선아야, 숫자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 늙지 말자. 그러려면 둘러봐야 해.

겨울 속의 내 주름을 세고 있을 시간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며칠 전에 선배가 "더 솔직하게 말해봐. 나는 그런 선아가 더 멋지던데"라고 응원해주던 일, 후배가 "힘들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줬던 것, 아빠가 "어제는 어릴 적 선아 사진을 오래 봤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하며 웃었던 일, 내 가까운 하얀 친구가 "우리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위로해주던 것, 조금만 둘러보면 이렇게나 고마운 목소리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때마다 고마워했고 그들이 내 곁에 있음을 안심했잖아. 그런 걸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몸에만 집중하다 한 해를 우울하게 보냈다는 것을 후회하자. 연말에는 후회해도 괜찮지. 맘껏 후회하고 우리 내년에는 고마운 사람들과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자. 내년 이맘의 편지에는 내가 아닌 그들에게 고마운 일을 자세히 늘어놓을 수 있는 건강함을 되찾아보자고.

그리고 있지. 너는 한때 참 귀엽고 용감했어. 지금은 전보다 더 현명하고 아름답지.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훨씬 지혜롭고 우아한 방향으로 걸어갈 거야. 나를 의심하거나 동정하는 바보가 되지 말자. 한 번도 내게 말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고마워. 내게도.

A PARTY WITH A NATURAL WINE

Words LEE JOO HEE (빅라이츠 오너) Photographer HOON SHIN

연말 파티의 흥을 돋워줄 내추럴 와인 리스트.

2019년 와인업계의 가장 큰 물결을 꼽으라면 단연 내추럴 와인이 아닐까.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라벨, 그보다 더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돌직구 같은 와인의 맛, 누구나 동의할 만한 메이커들의 철학이 내추럴 와인의 인기 비결. 하지만 보통의 와인들처럼 지역과 품종에서 맛을 짐작하기가 어렵고, 매우 강렬하고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제대로 고른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통의 와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글루글루(Glougou : 술이랑기보다 음료수 같아서 나도 모르게 꿀꺽꿀꺽 마시게 되는 내추럴 와인을 이르는 말)한 맛에 파티의 흥을 돋우기에도 제격이다. 여기 2019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할 내추럴 와인을 소개한다. 지난 2년 반간 매일 다양한 손님에게 추천하며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했으니 한번 믿어 보시길!



와인 애호가와 함께

격식 있는 자리에는 안 두리유 Yann Durieux의 지씨 GC를 추천한다. 특히 '좋은 와인 좀 마셔봤다' 하는, 와인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프랑스 와이너리의 전설 로마네 콩티 Romanee Conti의 오너이자 디렉터인 앙리 프레드릭 로슈의 개인 포도원인 프리외르 로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메이커의 와인이기 때문. 순수함과 산도가 그 어떤 부르그뉴의 와인들보다 인상적이며, 세계 최고의 포도 품종 중 하나인 피노 누아 Pinot Noir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렴하기까지 하다. 내추럴 와인은 말도 안 된다고,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와인 애호가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바로 이 와인을 택해보자. **Maker** 안 두리유 **Name** 지씨 **Price** 80만원대

반가운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둘러앉아 치킨이나 피자를 즐기는 편안한 모임이라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내추럴 와인 메이커 스테파노 벨로티 Stefano Bellotti의 볼 볼이 제격. 볼은 내추럴 와인에서 스파클링을 만드는 독특한 방법인 펫낫 Pet Nat을 적용해 만든 와인이다. 보통 샴페인이나 스파클링은 배럴에서 한 번, 병에 넣어서 한 번, 총 두 번의 발효로 탄산을 만들어내는데, 펫낫은 포도 주스를 병에 넣어 한 번만 발효해 버블이 있는 와인을 만들어낸다. 그만큼 거칠고 탄산은 약하지만 주스처럼 마시기 쉽고 재미있는, 더 프레시한 느낌의 와인이 된다. 볼은 익살스러운 광대를 그린 라벨부터, 천천히 음미하면 느껴지는 여러 가지 발달한 맛의 레이어가 기분이 좋다. 즐겁게 마시기에 이보다 좋은 와인은 없을 것. **Maker** 스테파노 벨로티 **Name** 볼 **Price** 10만원대

내추럴 와인 팬들과 함께

내추럴 와인을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스페셜한 와인 한 병을 골라야 한다면? 새로 소개된 수많은 와인 중 가장 날 설레게 했던 와인이 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패트릭 드블라 Patrick Deblats의 디안느 Diane다. 패트릭 드블라는 내추럴 와인의 팬이라면 누구나 세 손가락에 꼽는 메이커 제롬 소리니의 스승으로, 프랑스 르아르의 산꼴 짜기에 친거하며 마치 도인처럼 와인을 빚어낸다. 그가 만들어내는 소박하지만 근사한 와인 중 최고봉이 바로 이 디안느. 로제도 오렌지도 화이트도 레드도 아닌, 오묘한 색깔과 깊은 여운을 천천히 음미해보시길. 워낙 적은 양이 생산되고, 한국에도 아주 소량이 수입되어 접하기 쉽지 않지만 지난 일 년간의 와인들을 모두 돌아보기에 이보다 좋은 한 병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Maker** 패트릭 드블라 **Name** 디안느 **Price** 40만원대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데이트 나잇에는 단연 굿 오가우 Gut Oggau의 로제 Rose를 추천한다. 멋진 스토리텔링과 라벨, 그리고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세련된 맛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6년에 딱 한 번 만들어진 로제 2016은 굿 오가우의 와인 중 최고의 빈티지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셜한 와인. 서리 피해가 심했던 2016년, 많은 포도를 잃은 이들은 본래 만들던 여러 가지 께베를 섞어서 레드, 화이트, 로제 딱 세 가지의 와인만을 만들었고, 마치 전화위복처럼 굿 오가우가 지금까지 만든 와인 중 최고의 와인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보통의 로제보다 훨씬 짙은, 레드에 가까운 색깔에 섹시한 실크 같은 텍스처와 맛이 아름다운 이 로제가 식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로맨틱하게 책임져줄 것이다. **Maker** 굿 오가우 **Name** 로제 2016 **Price** 20만원대

TIME TO ORGANIZE MIND

Illustrator
SOKIDAHEE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다.
<향장>이 만난 뷰티 피플 3인은
어떤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할까.

이 일 중
헤어 스타일리스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인드컨트롤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 자신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단련이 되는 듯 하다.

2019년의 마지막 위시리스트 직업 특성상 연말에 일이 몰리는 편이

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실행하기도 어려워 흐지부지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이 늘 아쉽다. 이번에 겨울 휴가를 떠나게 된다면 스노보드를 타러 가고 싶다. 원래 보드 타는 것을 즐기는데, 예전에 샤포로에서 자연설로 뒤덮인 산에서 보드를 탄 적이 있다. 그때의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어, 연말만 되면 보드를 타러 가고 싶어진다. 바빠도 시간을 쪼개 다녀온다면 내년을 준비하는데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다.



김 태 희
김태희킴 플로럴 디자인 디렉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 연말이 되면 늘 스머지 스틱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스머지 스틱은 허브나 꽃잎들을 모아 명주실로 동여매어 만드는데, 스틱이 마른 후엔 불을 붙여 연기를 내면서 향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 스스로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머지 스틱을 만들어 나를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려고 한다.

2019년의 마지막 위시리스트 스머지 스틱을 한가득 챙긴 다음, 눈이 쌓인 깊은 산 속으로 오랜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항상 나만의 여행 스팟을 만들어 매년 같은 날, 같은 곳으로 떠나 조금씩 다른 추억과 경험을 쌓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다. 혼자든,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든 올 연말에는 꼭 나만의 여행 스팟을 찾고 싶다.

문 주 희
편지가게 글월 대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서로에게 소홀할 때가 많아서, 연말만큼은 누구보다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특별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다 함께 둘러앉아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를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끄럽지만, 작년 말에 이야기했던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해, 내년에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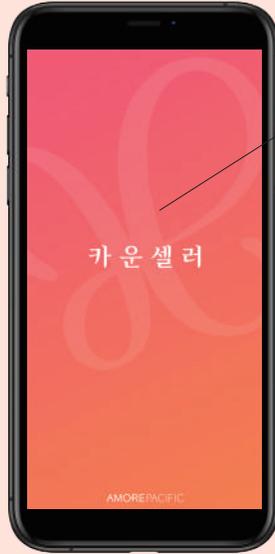
2019년의 마지막 위시리스트 올해 편지가게를 시작하고 찾아와준 손님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이 많다.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간 마음들에 많은 힘을 얻었고, 여전히 손으로 직접 편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내게 위안이 되었다. 그 편지들을 잘 정리하여 보관해두고 싶은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소중한 사람들의 다음 해를 응원하는 손편지를 쓰고 싶다. 이미 많은 약속을 잡아두었는데, 이 말을 지키려면 미리미리 써두어야 할 것 같다.



12월 카운셀러 몰 소식 확인하기

국민 뷰티 어플 뷰티Q가 카운셀러 몰로 더 새로워지고 강력해져 돌아왔습니다!

방관 고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카운셀러' 어플에서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뷰티&라이프 상품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전용 스토어에
'카운셀러'를 검색하고 설치하세요.
IOS 앱 스토어 이용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이용

카운셀러 몰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3



1 마켓

고객 맞춤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마켓입니다. 생필품부터 소형가전, 뷰티용품까지 원하는 상품을 타임세일, 1천 원 딜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만나보세요. 오픈 기념, 전 제품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 콘텐츠

카운셀러 몰에서는 뷰티&라이프 상품뿐만 아니라 뷰티 꿀팁과 운세, 여행 정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쇼핑은 물론 여가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카운셀러 몰에 놀러 오세요!

3 혜택

친구 초대, 출석 체크, 퀴즈, 리뷰 작성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면 뷰티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한 리워드 '클로버'가 주어집니다. 일일 200 클로버 이상 적립 시 바로 전환 가능하며, 매일 밤 12시에 자동 소멸되므로 클로버가 모이는 즉시 전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